



## 시험을 잘 보기 위한 10가지 조언

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.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학생 본인의 태도나 몸 상태 등도 포함될 수 있다. 아래에 나와 있는 조언을 읽으면 시험을 잘 치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출처: CTL 홈페이지 >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보기 > 교수학습자론실 > 학습법 > Learning - Tips

### 1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다

연필이나 볼펜, 사전, 시계 등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가져온다. 이렇게 하면 바로 시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.

### 2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을 유지한다

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하자. 초초해하지 말아야 한다. 시험 전이나 시험 중에 초조한 기분이 들면 천천히 긴 숨을 몇 번 들이쉬면서 긴장을 풀어 준다. 시험 전에 다른 학생들과 말하지 말자. 불안은 전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.

### 3 편안하게 임하되 긴장은 늦추지 말자

시험보기에 좋은 위치를 골라 앉고 시험보기에 충분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다. 의자에 앉아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한다.

### 4 (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) 먼저 시험 문제를 훑어본다

시험 시간의 10%는 문제를 훑어보는데 할애하자. 핵심적인 단어에 표시를 하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. 문제를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답안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다.

### 5 전략적인 순서로 답안을 작성한다

자신이 알고 있는 쉬운 문제부터 답안을 작성하고, 그 다음에는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답안을 작성한다. 제일 늦게 답을 써야 하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, 또는 작성해야 할 양이 가장 많은 문제, 배점이 가장 낮은 문제이다.



6 다지 선다형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찍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

틀린 것을 확실히 아는 답은 지워나가자. 지금 찍는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을 때 혹은 다른 선택권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찍는다. 근거가 없고 찍어서 잘못될 거 같으면 찍지 말자. 보통은 첫 번째 선택한 답이 맞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.

7 에세이 형식의 시험을 볼 때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

논거를 펼치고자 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몇 자 적어서 간략한 개요를 작성한다. 논거를 펼쳐 갈 순서대로 적어놓은 단어들에 순서를 표시해 두면 좋다.

8 에세이 형식으로 답을 쓰는 시험을 볼 때는 핵심 포인트에 바로 접근한다

핵심 포인트를 첫 번째 문장에 기술하고. 첫 번째 단락에는 전체 에세이의 개요를 서술한다. 나머지 부분에서는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좋다. 읽은 내용이나 노트 필기에 있었던 구체적인 정보나 사례, 인용문들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포인트를 뒷받침해 본다.

9 마지막 10% 정도의 시간은 남겨두었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하자

시험 문제를 다 풀자마자 빨리 시험장을 뜨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참을 것. 빠뜨린 문제나 철자, 맞춤법 등에서 틀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수정한다. 수학 시험의 경우는 빨리 암산해서 실제 답과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수로 답을 잘못 쓴 게 없는지 확인하자(소수점을 잘못 찍었는지 등).

10 시험 결과를 분석하자

이번 시험은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말 고사 준비를 할 때는 중간고사나 퀴즈 시험 본 것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자. 특히 어떤 학습 전략이 최상의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을 채택한다. 효과가 별로 없었던 학습 전략을 찾아내고 다른 방법으로 교체하자.

학습상담실

★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(61동 315호) ★ 홈페이지 : <http://ctl.snu.ac.kr>  
★ 전화 및 이메일 : 880-4027 / snulearn@snu.ac.kr